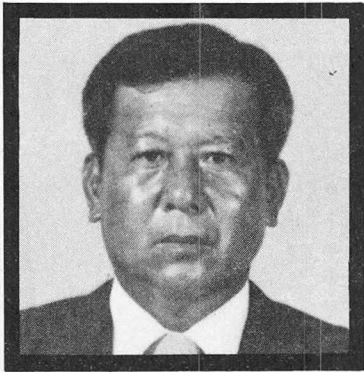


본회 화순지부 양재선 지부장 서거



고 양재선 지부장

본회 전남도협의회 산하 화순지부 양재선 지부장이 지난 7월 4일 자택에서 55세를 일기로 급서하였다.

고 양재선지부장은 1950년, 5년제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가의 혼란기에 군에 입대하여 투철한 애국정신과 남다른 전우애를 발휘, 두차례의 무공훈장을 수여받는등 빛나는 전공을 세웠으며 재대후 양돈업을 착수하여 낙후된 전남지역의 양돈업을 발전시킨 주역이었다.

또한 양재선 지부장은 양돈인들의 최초조직인 사단법인 한국양돈협회(현 대한양돈협회의 전신)의 초창기 어려운 시기에 중앙회 임원을 역임하는등 양돈인의 권익옹호와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코저하는 모든 일과 협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을 뿐아니라, 전남도지부의 창립과 화순지부의 창설에 산파적 역할을 담당한 희생적 지도자로서 많은 양돈인에게 항상 희망을 심어주고 동지적 우애와 존경을 받아왔으며,

항상 우리 업계의 어려운 일에 앞장서 온 인물이었다.

갑작스런 양재선 지부장의 서거 소식에 전남 각 지역의 많은 양돈인들이 줄지어 조문을 하였으며 특히 원로하신 본회 박종면 고문과 전남도협의회 기정도 회장, 안국환 전 도지부장을 비롯한 각 시군 지부장과 임원, 그리고 중앙회 한백용 전무가 7월 6일 거행된 장례식에 참석하였다.

특히 대한양돈협회 화순지부장으로 거행된 장례식에서 화순군지부 정종균 운영위원의 고인에 대한 약력 소개에 이어, 화순지부 회원 일동의 이름으로 된 조사를 김태환 부지부장이 낭독하자 숙연한 분위기는 마침내 눈물바다를 이루어 조사가 중단되는 등 고인을 기리는 애통할 심정들을 표현한 길이 없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분위기가 계속되었다.

장례식이 끝나자 수십명의 양돈협회 회원들이 머리에 건(巾)을 쓰고 직접 관을 옮기고 영구차를 뒤따라 장지에 도착한후 장례를 치루었다.



1973년 한국양돈협회 제 4차 정기총회에서 감사로 피선된 고 양재선지부장 (왼쪽 3번째)